

# 여름 극장가 대작 몰려온다



## '신과함께 2' '인랑' 등 8월 개봉 '인크레더블 2' '맘마미아 2' 등 할리우드 인기 시리즈 대거 등장

이른 더위와 함께 올여름 극장가도 뜨겁게 달아 오를 조짐이다. 한국영화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벌써 스크린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한다. 통상 여름 최성수기는 방학과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한 달간이다. 배급사들은 올해 이 시기에 작년보다 200만 명 정도 늘어난 약 350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전망한다. 다양한 장르·소재의 영화가 개봉하는 데다, 지난 5월 관객 수가 작년보다 약 280만 명 줄어든 만큼 여름에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서도. 올해 관련 포인트는 ▲ '신과함께 2'의 1000만 영화 등극 여부 ▲ 200억 원 안팎이 투입된 한국영화의 흥행 성적 ▲ 할리우드 프랜차이즈들의 귀환 등이 꼽힌다. ◇ '신과함께 2' 전편 흥행 뛰어넘을까 '신과함께-인과연' (신과함께2)은 8월 1일 개봉한다. 지난해 겨울 선보인 1편 '신과함께-죄와罰'은 1441만 명을 동원하며 '명량' (1761만명)에 이어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올랐다. 2편이 전편 흥행 바통을 이어받을지가 관심이다. 1, 2편을 동시 촬영한 '신과함께'는 1편 흥행만으로 총 제작비 400억 원을 모두 회수해 2편의 흥행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2편이 성공해야 3편과 4편 제작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신과함께 2'에서는 수홍(김동욱 분)과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는 저승 삼차사의 인연 그리고 현재 사람들을 돕는 성주신(마동석) 이야기가 펼쳐진다. 영화계 관계자는 "제작단계서부터 1편보다 2편이 더 재미있다고 알려졌다"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포용할 수 있는 소재여서 2편도 큰 인기를 끌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하정우·마동석 출연 등 흥행 요건도 두루 갖췄다. 다만, 관객 기대가 높아진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00억 원 안팎 투입된 '인랑', '공작'도 가세 SF액션 '인랑'은 7월 말 포문을 연다. '밀정'을 만든 김지운 감독 신작으로, 강동원·한효주·정우성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기대를 모은다. 일본 동명 애니메이션이 원작으로, 묵시록적인 원작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배경은 남북한이 통일준비 5개년 계획을 선포한 2029년. 경찰조직과 정보기관 간 숨막히는 대결 속에 늑대로 불리는 인간병기 인랑의 활약을 그린다. 배급사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측은 "할리우드식 SF가 아닌 김지운 감독 특유의 스타일이 가미된 새로운 SF"라며 "누아르 영화적인 코드와 함께 스파이 영화의 재미까지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순제작비는 190억 원으로,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제작비는 200억 원이 넘는다. 최소 600만 명이 관람해야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다. 8월 8일 개봉하는 '공작' (CJ E&M 배급)은 '범 죄와의 전쟁' (2011), '군도:민란의 시대' (2016) 등을 만든 윤종빈 감독 신작이다. 1990년대 중반 흑극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핵 실체를 캐기 위해 북한으로 잠입한 실존 안기부 첩보원 이야기를 담았다. 황정민·이성민·조진웅·주지훈이 주연을 맡아 치밀한 심리전을 그린다. 시대를

배경과 남북 관계 소재 등을 고려할 때 중장년층 호응이 예상된다. 순제작비는 165억 원으로, 손익분기점은 480만 명이다. 이외에 현빈·장동건 주연 '창궐'과 이성민 주연 '목격자' 중 한편이 여름에 개봉할 가능성이 있다. 배급사 뉴는 여름 개봉작으로 두 작품을 놓고 고민 중이다. 당초 올여름 관객을 만날 예정이던 송강호 주연 '마약왕' (쇼박스 배급)은 겨울로 개봉이 늦춰졌다. 비슷한 소재 영화 '독전'이 최근 먼저 개봉해 인기를 끈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 외화 시리즈물의 귀환 흥행이 검증된 할리우드 시리즈물도 대거 한국영화에 도전장을 내민다. 7월 초 '앤트맨과 와스프'를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 2', '맘마미아 2',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미션 임파서블6) 등이 줄줄이 극장에 내걸린다. 7월 25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개봉하는 '미션 임파서블6'는 한층 강력해진 액션을 선보인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국내에서 흥행불패였다. '미션 임파서블:고스트 프로토콜' (2011년)은 757만 명이 관람했고, '미션 임파서블3' (2006년·574만 명), '미션 임파서블:로그네이션' (2015년·612만 명)도 각각 500만 명 이상 동원했다. 주연인 톰 크루즈가 올해 한국을 다시 찾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 '진절할 톰 아저씨'로 불리는 톰 크루즈는 그동안 총 8번이나 내한하며 한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줬다. 이 밖에 이준익 감독 신작 '변산' (7월 4일 개봉)과 올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일본 고레 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여는 가족' (7월 26일) 등은 다크호스로 꼽힌다. /연합뉴스

## 故 조민기 딸 "쓴소리 아닌 도 넘은 글 대처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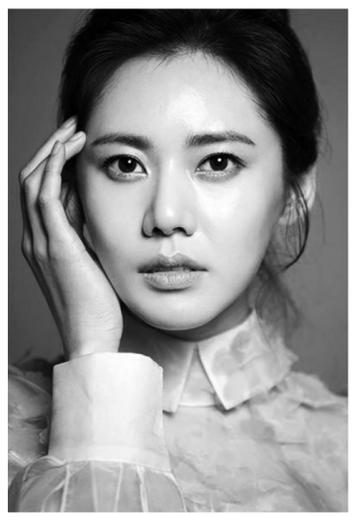
배우 고(故) 조민기의 딸 윤경(사진) 씨가 10일 SNS를 재개하면서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악성 댓글에 대한 대처 의지 등을 밝혔다. 윤경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다시금 좋지 못한 기억이 떠오르거나, 다시 부정적으로 회자할 피해자들을 위해 제 계정을 비공개로 뒀었다. 그리고 원래 하던 학업에 집중하고 내년에 가게 될 대학원 박사과정을 위해 성실히 준비해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하루아침에 (한 언론 보도로 인해) 연예인 지망생이 되어있었다"며 "제 꿈은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나 출처 불분명한 이야기를 통해 전 하루아침에 TV에 나오고 싶어 했지만 무산된 사람이 돼 있었다"고 관련 보도를 반박했다. 윤경 씨는 이에 대해 "대학원 생활 및 공부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브이로그'를 시작하고 싶어 관련 기획사와 몇 번의 접촉이 있었지만 제 콘텐츠는 제가 시작하고 저만의 색을 갖춘 후에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생각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를 향한, 또 저희 가족을 향한 쓴소리를 모두 읽어보고, 저 또한 이를 통해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았다"며 "그러나 사실이 아닌 도 넘은 댓글과 글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처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추자현, 출산 후 의식불명 보도에 "사실무근"

최근 첫아들 출산한 배우 추자현 (39·사진) 측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추자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0일 "추자현이 출산 후 경련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이송된 후 열흘째 의식불명이라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추자현은 현재 일반병동으로 옮겨 회복 중인 상태에 있으며, 주변 지인들과 문자로 나누는 등 무사히 건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처음 입원 시 폐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의식불명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추자현이 출산 후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입원 열흘째인 지금까지 의식이 없으며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중환자실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부인하며 "퇴원 예정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사히 회복 중"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이별이 떠났다 (재)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검법남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특선 영상앨범 산 3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특집 8부작 로드 투 러시아	00 너도 인간이니?(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검법남녀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bc특집토론 6.13 지방선거, 호남 표심은? (재)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지방선거 광주충국 경력방송 기초, 국회의원 보선 후보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재)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재)	10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뉴스브리핑
[3]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역사저널 그날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사이닝스타 3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05 헬로키즈 동물교실 2 (재)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뽀뽀뽀 로그인 코리아(재)
[7]	00 KBS 뉴스 7 25 동물의 건축술 플러스 35 우리말 겨루기	50 인형의 집	0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방송연설 15 특집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골짜기 50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연설
[8]	25 내일도 맑음	30 FIFA 월드컵러시아 2018 특집 불쇼 이영표 55 제보자들	5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8 뉴스 45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연설
[9]	00 특집 KBS 뉴스 9			05 사랑의 보금자리 스페셜 30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연설
[10]	00 지방선거 광주충국 방송연설 10 가요무대	00 너도 인간이니?	00 검법남녀	00 기쁨진 멜로
[11]	05 동물의 건축술 플러스 15 KBS 뉴스라인 40 다류세상	10 안녕하세요	10 MBC 스페셜	10 동산이동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지방선거 광주충국 경력방송 40 이웃집 찰스 (재)	35 FIFA 월드컵러시아 2018 특집 8부작 로드 투 러시아	10 백미인생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기행 - 홍콩의 밤 평안을 빌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열무김치와 양파김치>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마사와 곰
06:20 세계테마기행 <엄홍길의 나마스테 내팔 1부>	12:00 EBS 정오뉴스	17:30 띠띠뽀 띠띠뽀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8:00 생방송 퓌!퓌! 보너하니1~5
07:30 띠띠뽀 띠띠뽀	13:00 다류 오늘	19:00 몬카트
08:00 당동명 유치원1~2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신다	19:30 EBS 뉴스
08:30 몬카트(재)	13:40 배워서 남줄람(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45 방귀대장 뽀뽀	14:30 몬카트(재)	20:40 세계테마기행
09:00 뽀뽀뽀 뽀로로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1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류프라임 <한국사 오천년 1부 신라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메디컬 다류-7요일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3:55 배워서 남줄람(재)
	16:15 똑딱맨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탐탁스럽지 않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순탄하다. 48년생 상식에 근거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60년생 의외의 길사가 보이니 기대해 볼만하다. 72년생 경우가 아니면 응하지 말라. 84년생 균형 감각과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15, 78	午	42년생 기본적인 원리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54년생 효율성의 시각에서 가닥을 잡는 것이 생산적이라. 66년생 위험성을 감지 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 78년생 무난하리라. 90년생 의외로 더디게 진행되는 형상이 비친다. 행운의 숫자 : 64, 58
丑	37년생 난해했던 부분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열쇠를 갖게 된다. 49년생 주권에 치우치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61년생 남의 일에 나서면 무조건 손해이다. 73년생 중차대한 것을 이행하게 된다. 85년생 선택된 언어 구사를 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10, 92	未	43년생 안배를 잘 해야겠다. 55년생 사소한 집착이 대국을 망칠 수도 있다. 67년생 지금 확실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79년생 희망찬 기운의 진행이 계속되는 운이다. 91년생 불길한 기운이 보이니 조심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5, 63
寅	38년생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판도이다. 50년생 삼사일 언한다면 면책할 수 있을 것이다. 62년생 어떠한 판세에도 좌우되지 않는 주견이 필요하다. 74년생 구태의연한 과정은 해소하는 것이 맞다. 86년생 연유하는 근원을 알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6, 21	申	44년생 진전이 있으리라. 56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뒤따라 없다. 68년생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80년생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92년생 실효적인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운의 숫자 : 59, 20
卯	39년생 일찍부터 서둘러야 늦게라도 겨우 도달하리라. 51년생 쉬어가고 있으니 잘 살펴야겠다. 63년생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준수하라. 75년생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 87년생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근혹스러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2, 32	酉	45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접어야 한다. 57년생 용처가 있을 것이니 똑똑히 봐 두어야 할 것이다. 69년생 사후학 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자. 81년생 다시 한 번 점검하자. 93년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70
辰	40년생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말라. 52년생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하면 그만이다. 64년생 내버려 두면 위험하니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라. 76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 된다. 88년생 실질적인 내용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19, 23	戌	34년생 밤심한다면 호기가 약제로 변하리라. 46년생 체면을 의식하다가 아무런 일도 못한다. 58년생 길모습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70년생 마음은 있으나 현실 여건이 따라주지 못한다. 82년생 뜻밖의 것이 나타나지만 대응할 수는 있다. 행운의 숫자 : 99, 46
巳	41년생 숨이 막힐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길리라. 53년생 근시안적인 관점은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65년생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77년생 주체성과 자기확신이 절실한 때이니라. 89년생 보류해 왔던 일들을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70, 85	亥	35년생 점진적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47년생 안정 궤도로 진입하는 길목이다. 59년생 판도를 쉽게만 번다면 많은 취약점들을 간과하게 되느니라. 71년생 수양을 쌓고 지식을 쌓는다면 길경을 맞이하리라. 83년생 가장 절실한 일에 몰두하라. 행운의 숫자 : 34, 66